

여름 독감 이례적 유행...“48시간 내 치료해야 효과”



강주오
행복을주는
가정의학과의원원장

●여름 독감

보통 독감 바이러스는 추운 겨울철에만 활동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독감의 유행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례적으로 여름에도 유행하고 있는 독감에 대해 강주오 행복을주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을 통해 알아본다.

◇독감·일반감기의 차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으로 전염성이 감기에 비해 매우 강한 전염병이다.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20여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보

통 코감기, 목감기, 기침감기 식으로 증상이 따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독감은 일단 걸리게 되면 고열과 어지러움, 근육통이 주증상이며 감기에서 보이는 콧물, 기침, 가래, 인후통 외에도 설사, 복통, 구토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독감은 감기에 비

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1천명 중 57명이 독감 의심 증상을 보였다.

독감 유행이 계속되는 데는 매일 밤 낮으로 10도가 넘는 큰 일교차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 것과 연관이 있다. 또 최근에 독감과 비슷한 증상으로 보이는

콧물·기침 외 설사·구토 등 수반...전염성·사망 위험 ↑ “일교차·마스크 해제 등 영향...위생 철저·예방접종”

해 증상이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인이나 면역체계가 취약한 사람들에서는 폐렴, 기관지염, 뇌수막염 등으로 진행돼 사망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더불어 치료 방법에도 차이가 있고 예방법에도 예방 접종의 유무와 같은 차이들이 있다.

◇코로나나 감속 독감 유행 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5월21~27일) 전국 196개 독감 표본 감

다양한 급성 호흡기감염증이 함께 유행하고 있다.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다수의 호흡기 전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다 보니 해당 호흡기 질병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지속되는 큰 일교차에 의해 면역력이 더 떨어지게 되면서 독감 바이러스에 취약해지는 상황이다.

◇겨울 독감과 차이·예방접종 효과

겨울 독감과 여름 독감은 똑같은 인



강주오 행복을주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은 최근 더운 날씨 속 이례적으로 '여름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예방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인 호흡기 감염병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보통 A, B, C형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A, B가 사람에게 감염되며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A형이 유행하고 봄철에 B형이 유행한다.

그러나 올해는 유행 시기가 완전히 틀어져서 겨울철 독감 즉 A형 독감이 B

형과 혼재돼 유행하고 있다.

독감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대략 6개월 가량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보통 유행시기가 12월에서 그다음해 1월 그리고 개학시기인 3월에 유행하기 때문에 평균 10월께 늦어도 11월까지 예방접종을 마무리 하는데, 문제는 현재 6월이 넘어섰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

효과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 유행을 만든 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안 한 경우보다는 예방주사를 맞은 경우 증상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독감 치료·예방법

일단 독감에 확진됐을 시에는 주로 '타미플루'로 알려진 오셀타미비어라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해야 한다. 또 휴식, 충분한 수분 섭취, 해열제와 감기약 즉 각종 증상 억제제를 투여해 볼 수 있다.

보통 이런 약물들은 증상의 강도와 기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증상이 나타나 후 처음 48시간 이내에 복용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강주오 행복을주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은 “건강한 식이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실내 환기 및 가습 등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해마다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리=오복기자



광주기독병원 '환자안전·감염관리 주간행사'

16일까지 '환자안전 특목, 감염관리 쑥쑥' 주제

광주기독병원이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제16차 환자안전·감염관리 주간행사'를 진행한다.

13일 광주기독병원에서 따르면 12-16일 '환자안전 특목, 감염관리 쑥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환자안전, 직원 안전, 감염 관리에 대한 환자와 직원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리더십 안전 라운드-환자 안전 Speak up 캠페인 ▲환자 안전 특목 캠페인 ▲우리들의 안전 감염 포어 or 다짐 전시회 ▲니프간 게임 ▲포춘 '행운을 잡아라' ▲'가로세로' 퀴즈 ▲환자 확인 방송 참여 이벤트 ▲'선물줍게 다짐다오' 전시회 ▲환자 안전 문화 인식 조사 등 다양한 활동과 이벤

트로 구성됐다.

특히 병원장을 필두로 3개조로 구성된 경영진이 참여한 '리더십 안전 라운드-환자안전 Speak up 캠페인'에서는 각 부서의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 활동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살펴보는 한편, 각 병실을 방문해 환자와 함께 부채에 부착된 낙상사고와 환자 확인 안내 문구를 크게 외치는 등 환자 안전에 있어 환자 및 보호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홍보했다. (사진)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리는 매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광주기독병원은 앞으로도 안전한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조선대병원, 국민의료 AI서비스 '중심축' 우뚝

과기부 2차년도 사업 수행...전국 첫 도시 의료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조선대병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Health 국민의료 AI 서비스·산업 생태계 구축의 중심축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전국 최초로 도시 전역 의료데이터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통해 광주를 'AI 의료체계 구축 도시'로 견인할 예정이다.

13일 조선대병원에서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K-Health 국민의료 AI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의 참여 수행기관으로 지난해 8월 선정돼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4월부터 2차년도 사업에도 참여해 오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조선대병원을 비롯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등이 협력해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도시 전역 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인공지능(AI)과 융합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AI 기반 병원 응급 의료 통합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복기자

이번 사업에서 조선대병원은 질병군에 적합한 형태와 내용의 데이터 및 라벨링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비식별화 등의 절차를 거쳐 접근이 제한된 오픈랩(Open Lab)을 이용, 기업·연구소 등에 제공하고 기업·연구소는 제공받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오복기자

광주 인구 당 활동 의사 수 '전국 3번째'

신현영 의원 "지역별 인력 양극화"

광주지역 활동 의사 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호사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지역별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와 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인력이 이 미 많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계속 몰려 지역별 활동 의료인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 간 지역별 활동의사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가량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 수는 ▲서울 347명 ▲대구 262명 ▲광주 262명 순으로 많았고, 의사 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2013년(267명) 대비 0.80명 늘어 증가량도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0.58명 ▲광주 0.51명 순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지역별 인구 1천명 당 활동 간호사 수는 ▲광주 6.95명 ▲서울 6.55명 ▲대구 6.54명 순으로 많았다. 활동 간호사 수가 상위권에 속했던 대구는 활동 간호사 수가 13년(3.27명)

대비 22년 3.27명 늘어 10년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광주 3.26명 ▲서울 3.08명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의료인력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필수 의료 붕괴,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수가 포함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오복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DREAM KOREA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